



정교회 주보

정교회 한국대교구



성 안투사 순교자

마태오 제9주일

성 레온, 성 세라피온 순교자

제8조, 조과복음 9

성 요한 크리소스톰 성찬예배에서

- 제1,2응송 '성모 안식 축일 스티히라'만 / 44. A 34
- 제8조 부활 찬양송 / 82. A 218
- 주일 입당송 / 14. A 42
- 성모 안식 축일 찬양송 / 181. B 188
- 성당 찬양송
- 성모 안식 축일 시기송 / 181. B 191
- 사도경: 고린토 전 3,9-17 / 봉독서 194
- 복음경: 마태오 14,22-34 / 113. B 44
- 기타는 보통 주일과 같음

성인들이 삶으로 전해 주는 구원의 말씀

성 안투사 순교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로는 갈라디아인들에게 보낸 서신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종이냐 자유인이나 아무런 차별이 없다.”(갈라디아 3:28)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가 종이든 자유인이든 신분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가 종이든, 자유인이든 모두 사회적 신분적 차별을 폐지하고 넘어서는 새로운 사회 새로운 인간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두 형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로는 필레몬에게 보낸 서신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한 주인과 똑같이 그리스

도인이 된 한 종에 대해 말하길, “내 믿음의 아들 오네시모를 이제는 더 이상 종으로서가 아니라 종 이상으로 곧 사랑하는 교우로서 받아주길 부탁드립니다.”(필레몬서 1:16)고 했던 것입니다. 거룩한 순교자들의 역사를 보면, 주인이 종들과 함께 신분의 차이를 넘어 믿음의 형제로서 순교의 길을 간 많은 예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8월 22일 축일로 기념하는 성 안투사 순교자(3세기)도 자신의 종이었던 성 하리시모스, 성 네오피토스와 함께 영광스러운 순교의 길을 갔던 분입니다.

부러움과 질투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이파 사람들 등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하느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시기하고 질투해서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하였다.

천사도 하느님의 창조물이지만 하느님을 거부하고 하느님의 위치를 질투하여 하느님을 대적하는 악의 왕인 사탄이 되었다.

질투의 왕이 된 사탄은 아담과 하와를 피어서 선악과를 먹게 하여 그와 같은 악의 길로 가게 만들었다.

카인은 하느님의 사랑을 받는 그의 동생 아벨을 질투하여 동생을 죽이는 인류 역사상 첫 번째 살인을 행하였다.

이와 같이 성서적으로도 질투는 모든 악의 근원을 제공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질투는 욕심이 생겨나게 하고 그 욕심을 충족시키기 위해 갖은 방법을 다 동원해서 그 뜻을 이루려고 한다. 더 나아가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악에 빠지게 하는 동기를 제공하는 결과를 낳게도 만든다.

자신의 질투로 인하여 상대방을 힘들게 하고 믿음을 잃게 하는 것은 마치 자신도 하늘나라에 가지 못하면서 가려고 하는 사람들마저 못 가게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한다.

반면에 사랑은 모든 것을 감싸주고 포용하고 이해하고 자비를 베풀게 해준다. 사랑은 남을 억누르려 하지 않고 겸손히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게 해준다. 그리고 상대방을 바른 길로 잘 나아가게 인도해준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희생적인 사랑이다. 그런 겸손한 사랑이 영적 사랑이고,

그 사랑을 알아보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고, 그런 사람만이 올바른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다.

8월 15일은 성모님의 안식일인 교회의 큰 축일이면서 조국 광복의 기쁜 날이기도 하다. 성모님은 하느님을 낳으신 복되신 분이시고 우리는 그분을 모든 성인들에 앞서 공경하고 사랑한다. 그분은 하느님을 낳으신 분이시지만 평생을 굳건한 믿음으로 겸손하게 인간적인 모든 괴로움을 감수하며 영적인 사랑으로 하느님의 뜻을 따랐던 분이시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했지만, 자신을 낮추고 늘 보이지 않게 예수님의 길을 지켜보고 계셨던 것이다.

최근에 한일 문제가 심각하게 발전된 것은 한국을 질투하는 일본의 겸손치 못한 거만함으로 한국 국민의 감정을 계속 자극시켰기 때문이다. 겸손치 못한 덕의 결과는 이렇듯 감정을 상하게 하고 적을 만드는 결과를 갖게 된다.

부러움은 상대방을 인정하고 배우려는 겸손한 자세를 갖게 하지만, 질투는 상대방의 것을 빼앗고 짓누르려는 욕심을 갖게 해서 파괴시키는 악을 갖게 한다.

우리는 성모님과 성인들의 영적 사랑을 부러워 하고 배워야 한다. 우리도 그들과 같이 하느님을 사랑하고 하느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노력해야 된다. 성모님의 안식을 맞이하여 성모님의 사랑이 더욱더 우리 가까이 다가와서 그와 같은 믿음을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성모님께 간청한다.

▶ 알렉산드로스 한의중 신부

그리스도교 낙관주의자

미국 텍사스의 유명한 전문의인 존 스텔린(John Stehlin, 1923-2013) 박사는 희망이 인간으로서 우리의 생존에 본질적이고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사람은 신체적으로 살아있을 수 있다. 그러나 만일 희망을 잃는다면, 그(녀)는 죽은 환자이다. 희망이 없는 것은 죽음이다.”

오늘날 우리는 희망을 말하는데, 이는 절망이 마치 유행인 것처럼 되어 버린 세계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다. 희망이 없는 이런 분위기는 곳곳에서 발견된다. 만일 누군가 일어서서 희망에 대해 말하면, 그(녀)는 천박한 낙관주의자이며 삶의 고통과 어려움에 대해 잘 모른다는 비난을 받는다.

철학자 니체(F. W. Nietzsche, 1844-1900)는 “희망은 가장 사악한 악”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같은 절망의 태도에 영원히 반대할 것이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느 누구도 결코 비관주의자가 될 수 없다. 낙관주의는 손쉬운 바람이나 그릇된 희망에 근거하지 않는다. 도리어 그것은 우리의 아버지이신 전능하신 하느님에 토대를 두며,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 이미 하신 일과 또한 앞으로 하실 수 있는 것에 바탕을 둔다.

▶ 아타나시아



소 식

대교구

■ 구세주 변모 축일과 정교회 한국대교구 여름 수련회 수료식 ▷ 다른 해와 마찬가지로 가평 구세주 변모 수도원에서 여름 수련회의 3번째 기간인 고등부 수련회(2019년 8월 4~6일)의 수료식이 거행되었습니다.

구세주 변모 수도원에서 축일 조과와 성찬 예배 후 사랑의 오찬을 함께 나눴고, 이어서 수련회에 참석한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간략한 발표회를 가졌습니다.

암브로시오스 조성암 한국대주교님은 현재 그리스에 계신 우리의 영적 아버지 소티리오스 피시디아의 대주교님의 축복과 아가티 백은영 수녀의 축하 인사말을 전해주시고, 올해 여름 수련회를 무사히 마칠 수 있게 해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리고, 수련회를 준비하고 진행하고 협력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 한반도 평화 통일 기도식 참석 ▷ 지난 8월 11일 주일 오후 NCK가 주관한 '세계교회와 함께하는 한반도 평화통일 공동기도주일 연합예배(한,일 공동시국기도회와 8·15 예배)'에 암브로시오스 대주교와 안토니오스 임종훈 신부, 요한 박인곤 보제 그리고 4명의 신자들이 함께 참석하여 동북아 평화를 위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 정교회 출판사 신간 소개: 『상처 입은 독수리』 ▷ 정교회 교부총서 세 번째 책인 '상처 입은 독수리, 신학자 성 그레고리오스'가 그리스에 계신 앙겔리키 박 교우님의 번역으로 출판되었습니다. 이 책은 하느님의 은총으로 독수리처럼 신학의 높은 고지를 올랐던 우리의 위대한 성인, 신학자 성 그레고리오스의 생애를 감동 깊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야기체로 서술되어 쉽게 읽을 수 있는 성인의 전기를 통해, 성인의 거룩한 덕과 생애, 그리고 성인이 삶으로 보여준 정교 신학

의 참된 본질을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무더운 여름이 다 가기 전에 성인을 전기를 읽고 새로운 마음과 정신으로 다가오는 새로운 전례력을 충만하게 맞이하시길 바랍니다.(506쪽 / 가격 15,000원)

서울 성 니콜라스 대성당

■ 영원히 기억하시리이다 ▷ 지난 8월 9일에 안타깝게도 콘스탄티노스 구재식 교우가 안식하였습니다. 미국에 있는 그레고리오스 구재덕 신부의 동생으로 어릴 때부터 성당에서 예배를 생활을 하면서 성가대에서 랜 기간 봉사를 하였고, 성당의 많은 일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고인의 영혼의 평온한 안식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영원히 기억하시리이다.

부산 성모 희보 성당

■ 여름 수련회 결과 ▷ 지난 7월 26일부터 28일까지 2박 3일 동안 유치부, 초·중·고등부 수련회를 가졌습니다. 성당에서 진행된 수련회는 '예식과 교회'를 주제로 삼아 구약의 예배 형태와 신약시대에 이르러 주님께 서 최후의 만찬 때 제정해 주신 예식의 상관성에 대해 공부하고, 예식에 참여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공부했습니다. 그 밖의 야외 활동과 게임 및 장기 자랑을 통해서 교회적으로 의미 있고 기억에 남는 소중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안전하고 편안하게 지켜 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리며, 수고해주신 교사분들과 봉사자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 세례를 축하합니다 ▷ 7월 13일에 아그니아아름과 8월 10일에 요르고스 최도현의 유아세례가 있었습니다. 성령의 은총과 보살핌으로 잘 성장하여 바른 정교인으로서의 신앙생활을 하며 자라기를 기원합니다.